

## 『삼국유사』에 표기된 초월적 색채 오색(五色)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nscendental Colors—the Five Cardinal Colors—expressed in 『Samgukyusa』

---

저자  
(Authors) 이순희  
SoonHee Lee

출처  
(Source)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8\(2\)](#), 2014.5, 5-13 (9 page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28\(2\)](#), 2014.5, 5-13 (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색채학회](#)  
Korean Society Of Color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69423>

APA Style 이순희 (2014). 『삼국유사』에 표기된 초월적 색채 오색(五色)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8(2), 5-1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1.229.139.\*\*\*  
2021/09/17 14:1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국유사』에 표기된 초월적 색채 오색(五色)에 관한 연구

이순희

계명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삼국유사』에 표기된 초월적 색채인 오색(五色)은 동양의 음양오행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방정색은 외면적·내면적 색채의 상징과 달리 신비함과 신성함을 내포한 색으로서 완전함을 뜻하는 동경의 대상이 되는 색이다. 특히 『삼국유사』에서의 오색의 표현은 불교로서 나라를 구한다는 ‘불국토’의 종교적 정신과 왕권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초월적인 색으로 나타난다. 또한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색으로 표기되어 그 신묘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삼국유사』에 표현된 ‘불국토’의 사상에 대한 종교적 신성함은 온갖 기이한 형상과 부처를 모시기 위한 ‘오색찬란한 방식’의 표현이나 ‘오색광명형(五色光明形)·오색원광형(五色圓光形)’과 같은 부처의 진신(眞身)을 형상화한 내용에서 나타난다. 왕권의 웅립과 신성성을 드러내는 표현은 정신대왕(淨神大王)의 태자 효명(孝明)의 즉위 과정에서 이레 동안 나타난 신비한 ‘오색구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벽사의 색으로서 오색의 표현은 선덕왕 덕만의 병을 낫게 한 밀본법사(密本法師)의 이마의 ‘오색찬란한 빛’이나 그의 이마 위에 들린 ‘오색구름’과 같은 표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오색의 표현은 대부분 동물이나 식물과 같이 구체성을 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 관념을 투영시킬 수 있는 무생물의 형태로써 초월적 신비함을 표현한 것이다. 오색의 형태는 오색의 빛 그 자체이거나 부처의 형상과 빛, 사물의 표면의 색 혹은 오색의 구름과 같은 현상색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오색은 초월적 상징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페르소나(Persona)의 아키타입(Archetype)과 긍정적 그림자의 아키타입이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오색, 삼국유사, 색채어, 한국 전통색채, 벽사의 색, 아키타입

## A Study on Transcendental Colors—the Five Cardinal Colors—expressed in 『Samgukyusa』

SoonHee Lee

Ph.D., Department of Fine Arts, Keimyung University

The transcendental colors, i.e. the five cardinal colors in 『Samgukyusa』 are closely related to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Idea of the Orient. The five cardinal colors, unlike the symbol of external, internal colors, are the ones implying perfection as the colors connoting the mystery and sacredness, becoming objects of admiration to people. Particularly, expression of the five cardinal colors in 『Samgukyusa』 is embodied in transcendental colors symbolizing the religious spirit of 'The Land of Buddha,' which has the meaning of saving a nation with Buddhism and of sacredness of royal authority. In addition, the five cardinal colors are expressed as the ones driving away evil spirits, representing the mysterious, marvellous taste as well. The religious sacredness for the idea of 'The Land of Buddha' expressed in 『Samgukyusa』 is shown through the expression of 'the brilliant sitting cushion' to serve all sorts of bizarre shapes and Buddha, or in the content of imagery of holy body of Buddha such as 'five-colored brilliance. five-colored halo.' The expression revealing enthroning and divinity of royal authority can be observed through the mysterious 'five-colored clouds' which appeared for seven days during the enthronement process of Hyomyeong the prince of King Jeongshin. The expression of the five cardinal colors as the ones expelling evil spirits can be found in the expressions like 'the five bright colors' on the forehead of Buddhist monk Milbon, who healed the diseased king Seondeok Deokman, or 'five-colored clouds' wrapped on his forehead. The expression of the five cardinal colors in 『Samgukyusa』 does not have concrete life like most animals and plants. As the form of inanimate object that can project the abstract concept, it is the expression of the transcendental mystery. The form of five colors is expressed as the light itself of the five colors, form and light of Buddha, the color of the surface of an object, or appearance colors like those of five-colored clouds. In addition, the five cardinal colors signify the power of transcendental symbol, and it could be seen that the Archetype of Personal and Archetype of positive shadow are embedded.

Keywords: Five Cardinal Colors, Samgukyusa, Color Words, Korean Traditional Colors, Evil-Spirit-Expelling Colors, Archetype

## 1. 서론

『삼국유사』는 1281년(충렬왕, 7년)경 편찬된 고문헌으로서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 고대사회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삼국유사』에 기록된 다양한 색채어는 한국의 고대사회에 대한 색채의식과 그 상징성을 연구함에 있어 더욱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색채어 중에서 한국 전통 색채의식과 관련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오방정색의 의미와 사상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삼국유사』 원문에 표기된 오색의 의미는 더욱 연구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선행 연구인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인의 색채 의식과 색채 상징성 연구”에서는 오방정색인 오색(五色)을 초월적 색채어로 구분하고 있다(이순희, 2009). 또한 『삼국유사』에 나타난 색채의식은 외면적·내면적·초월적 색채와 상징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색채어들을 구분하고 있다. <표 1>은 『삼국유사』의 상징적 색채어와 그 표현 빈도가 높은 색채계열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표 1> 삼국유사의 상징적 색채어와 색채계열

구분	식물	동물	무생물	표현 빈도가 높은 색채계열
외면적 색채어	○	●	◎	황색
내면적 색채어	○	○	◎	흰색
초월적 색채어	○	○	◎	적색, 오색
표기 : ○ - 나타남. ● - 나타나지 않음. ◎ - 가장 많음.				

<표 1>에서 외면적 색채어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상징성을 지닌 가시적 색채 표현들을 말한다. 외면적 색채어는 동물에 투사된 것이 없으며, 무생물에 투사되어 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이 식물에 투사된 경우가 많다. 외면적 색채어 중에 표현 빈도가 높은 색채로는 황색계의 표현이 전체의 32%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내면적 색채어는 주관적 상징성을 지닌 색채어로 동물, 식물, 무생물 등에서 모두 나타나며, 무생물로 투사되어진 것이 가장 많다. 내면적 색채어 중에 표현 빈도가 높

은 색채는 흰색계의 색채가 53%로 가장 많으며, 흰색 이외에 적색계가 23%로 나타난다. 초월적 색채어는 경계(警戒)의 의미를 가지는 신성한 색으로 사용되거나 신비감을 가진 동경의 대상이 되는 색들로 무생물에 투사된 것이 가장 많다. 초월적 색채어 중에 표현 빈도가 높은 색채는 적색계의 색과 오색(五色)으로 표현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삼국유사』에 표현된 오색의 의미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분석과 구분을 하고자 한다. 특히 『삼국유사』에 표현된 오색은 초월적 의미를 가진 색으로 구체적 관념 연상보다 추상적 관념 연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추상적 관념 연상은 문헌 속에서 그 색채어가 가진 상징성을 살펴 어떠한 사상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판단함에 역할을 한다고 본다.

『삼국유사』는 전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초월적 색채인 오색이 표현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제 3권 <탑상> 제4 사불산(四佛山)·굴불산(掘佛山)·만불산(萬佛山), 제 3권 <탑상> 제4 대산(臺山)의 오만진신(五萬眞身), 제 5권 <신주> 제6 밀본(密本)의 최사(摧邪) 등이다. 각각의 구절에서 오색의 표현은 초월적 색으로 사용된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투사된 의미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에 대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문헌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의 의미를 원문과 번역문을 토대로 그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둘째, 분석 방법에 있어 종교적 정치적 관점과 함께 아키타입의 심리분석 방법을 새롭게 시도하여 좀 더 심층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해 본다. 셋째,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의 예문을 제시하고 의미를 구분하여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전통색채의식에 있어 오색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넷째, 오색을 각각의 의미에 따라 구분해 보고 정리해 봄으로써 한국인에게 내재된 색채의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인에게 전통 색채 의식인 오방정색이 가지는 중요성을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을 통해 더욱 조명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삼국유사』에 표기된 초월적 색채 오색(五色)에 관한 연구에 앞서 예문 인용과 분석을 위한 번역문과 원문에 대한 선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역문은 이가원이 번역한 『삼국유사신역』을 기본으로 활용한다(이가원, 1991). 또한 직지프로젝트의 공식 문서에서 ‘삼국유사(현대문)’의 기록을 참고함을 밝힌다. 직지프로젝트의 삼국유사는 이민수가 1994년 을유문화사에서 번역하여 출판한 『세계의 사상 1: 삼국유사』의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화하여 입력한 문서이다. 일연의 『삼국유사』 원문은 1973년 민족문화문고간행회의 ‘삼국유사: 한국고전총서 1’을 참고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색채어의 사용에 있어 색명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관용적 색명을 그대로 쓰며, 특히 물리적 색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는 색명 사용에 있어 그 목적이 색재(色材)에 대한 물리적 도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색의 의미와 상징에 대한 내용이 연구 대상이 되며, 본 연구에 있어 이러한 심리적 접근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 『삼국유사』의 <혜현(惠現)의 구정(求靜)>에서 ‘붉은 연꽃’의 붉은 색은 불교에서 열반의 경지를 뜻하는 상징적 색으로 해석된다. 또한 속세를 떠나 해탈한 승려의 ‘자아성찰’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붉은 색의 물리적 규정보다 붉은 색이 의미하는 불교적 사상과 종교관에 대한 해석이 연구 대상으로 적합함을 밝힌다.

원문> 鹿尾傳經卷一場, 去年清誦倚雲藏. 風前青史名流遠, 火後紅蓮舌帶芳(일연, 민족문화문고간행회편, 1973).

번역문> 파리체로 경을 전함, 한 마당에 게을러. 지난해엔 맑게 외며, 구름 속에 숨었도다. 풍전에 남은 청사, 그 이름이 멀리 전하니. 불 탄 뒤 붉은 연꽃, 혀 끝에 꽃답도다(이가원 1991).

- 『삼국유사』 제 5권 『피은(避隱)』 제 8, <혜현(惠現)의 구정(求靜)> -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의 표현 또한 그 색

채어가 포함된 구절을 발췌하여 원문과 번역문의 전후 문맥과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각각 분석하고 구분하여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정리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고문헌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의 색채어들을 원문과 번역문을 토대로 예문을 제시하여 선정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오색에 대한 의미를 각각 분류하여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 및 색채에 대한 무의식적 분류인 아키타입의 분석 방법을 두어 구분하고자 한다. 종교적 의미로는 ‘불국토’의 사상과 벽사의 상징적 색으로서 구분해 보고, 정치적 의미는 왕권을 신성시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분석 방법의 시도로 색채에 대한 무의식적 아키타입을 제시해 본다.

## 3. 오색과 오행사상

초월적 색채에 해당되는 오방정색인 오색은 한국의 전통색채의식과 사상에 있어 큰 영향을 주는 색이다. 오방정색은 동양의 오행사상에서 비롯된 색으로 다양함을 아우르는 완전함의 의미를 가진 색이다. 문은배는 한국 민족이 숫자 오(五)를 완전한 수로 여긴다고 볼 수 있으며, 오행사상이 한국 민족에게 있어 중요한 사상적 기틀이 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온갖 곡식을 넣은 밥을 오곡밥이라 부르고, 무지개는 오색무지개라 한다. 음계는 5음계 궁, 상, 각, 치, 우로 나누고, 전국을 큰 산을 뜻하는 5악(백두산, 삼각산, 금강산, 지리산, 묘향산)으로 나타낸다. 왕이 업무를 보던 궁궐을 5대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궁궐로 일컬으며, 승례문, 흥인지문, 돈의문, 숙정문의 4대문이 있다. 正(바를 정)에서 보듯 5와 관계된 것들은 완전함을 뜻한다(문은배 2012).”

이러한 오방정색의 활용은 음양오행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삼국시대이후부터 꾸준히 확산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일반 서민층에서도 음양오행설을 받아들이고 오방정색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다. 조선시대의 의궤(儀軌)와 악보를 정리한 악학궤범(樂學軌範)에서도 처용무(處容舞)의 작대(作隊)를 살펴보면 다섯 명의 무용수가 청·홍·황·흑·백색의 오방색 무의(舞衣)를 입고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축귀의례(逐鬼儀禮)를 행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행사상

이 한국 민족의 전통 색채의식에 있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사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표현된 오색 또한 오행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색채어로서 한국의 전통 색채의식을 대변할 만한 색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방정색은 말 그대로 다섯 가지의 색들을 의미한다. 청·홍·황·흑·백색의 색으로 각각 계절과 방향 등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오색을 하나로 합하여 한 가지의 색채어로 조합하여 사용함에는 그 의미와 상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색으로서의 오색은 신묘함과 신성함의 상징성을 가지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과 축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완전함의 의미를 가진다. 즉, 조화와 화합을 뜻하는 완전함의 색이며, 하나의 색들과 달리 초월적 색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도 그러한 오색의 초월적 의미와 상징들을 찾아 볼 수 있다.

#### 4. 『삼국유사』의 오색표현

『삼국유사』에 표현된 오색의 의미를 구분해 보면 ‘불국토(佛國土)’ 사상의 오색, 왕권의 신성성에 대한 상징적 오색, 그리고 벽사의 의미를 가진 오색으로 각각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오색을 다섯 가지의 개별적 색이 아닌 한 가지의 색으로 오색 자체를 의미하는 색채어로 표현된 것만을 대상으로 살펴 본 내용이다. 또한 표기된 오색은 여러 문장의 문맥을 서로 제시하여 살펴 본 것이다.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은 ‘오색이 찬란한 방식·오색광명형·오색원광형·오색 구름·오색 찬란한 빛’ 등의 색채어가 있으며 생명이 있는 동·식물에 대한 투사는 없고 사물의 표면색이나 현상적인 색만 표현되어 있다. 각각의 표기된 구절과 오색표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불국토’ 사상의 오색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一然國尊, 1206~1289)은 고려의 무신정권 성립과 대몽항쟁기(對蒙抗爭期)라는 사회적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살아온 인물이다. 일연은 분쟁이 없는 불국토(佛國土)를 이룩하기를 염원하였고 그러한 동력을 건장한 불

교문화와 기층사회의 삶 속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에 항쟁하는 과정에서 고양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유구성과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존은 불가의 입장에서, 기층민의 입장에서, 전통문화의 가치 고양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고대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심미성을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국존은 정사에 채록되지 않아 진흙에 묻혀버린 전통문화의 옥(玉)들을 찾아내어 빛을 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노중국, 2009). 일연의 불교사상은 『삼국유사』 제 3권 『탑상(塔像)』 제4, 사불산(四佛山)·굴불산(掘佛山)·만불산(萬佛山)에서 ‘오색이 찬란한 방식’을 만들어 밝은 구슬과 아름다운 옥을 쌓고 부처를 모시는 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연은 불교의 종교적 신묘함을 오색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불교사상에서의 오색은 상서로운 색을 의미하며 종교적 신비성을 대변하는 초월적 색인 것이다.

<예문1> 王又聞唐代宗皇帝優崇釋氏, 命工作五色氍毹, 又彫沈檀木, 與明珠美玉爲假山, 高丈餘(일연, 민족문화문고간행회편, 1973).

왕이 또 『당나라 대종황제(代宗皇帝)가 불교를 극도로 높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인(工人)에게 명하여 오색(五色)이 찬란한 방식을 만들고, 또 침단목(沈檀木)을 아로새겨서 밝은 구슬과 아름다운 옥을 쌓아 가산(假山)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한길 이 넘었다(이가원 1991).

- 『삼국유사』 제 3권 『탑상(塔像)』 제4, <사불산(四佛山)·굴불산(掘佛山)·만불산(萬佛山)> -

『삼국유사』 제 3권 『탑상(塔像)』 제4, <대산(臺山)의 오만진신(五萬眞身)>에서도 동대(東臺, 만월산), 남대(南臺, 기린산), 서대(西臺, 장령산), 북대(北臺, 상왕산), 중대(中臺, 풍로산)의 다섯 방향에 각각 일만 진신이 있어 모두 오만 진신에 일일이 침례하고 36종의 변형을 지어 그 중 ‘오색광명형’과 ‘오색원광형’을 두어 종교적 신묘함을 들어내고 있다.

<예문2> 二太子到山中, 青蓮忽開地上. (중략) 如是五萬眞身一一瞻禮. 每日寅朝, 文殊大聖到眞如

院·今上院, 變現三十六種形, (중략) 或五色光明形, 或五色圓光形(일연, 민족문화문고간행회편, 1973)

두 태자(太子)가 산중 속에 이르자 푸른 연꽃이 홀연히 땅 위에 피었다. (중략) 이와 같이 오만 진신에게 일일이 침례하고 매일 아침 인시(寅時)에 문수대성(文殊大聖)이 진여원(眞如院)에 이르렀으니, 지금의 상원(上院)이었다. 36종의 변형을 짓되, (중략) 오색광명형(五色光明形), 또는 오색원광형(五色圓光形)(이가원 1991)

- 『삼국유사』 제 3권 『탑상(塔像)』 제4, <대산(臺山)의 오만진신(五萬眞身)> -

<예문1>과 <예문2>의 경우 불교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초월적 색으로서 오색을 표현하고 있다. 두 예문에서 모두 오색은 불교의 신비한 힘을 의미하는 색이다. 또 상서로운 신비한 빛이 곧 나라를 지키며 중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예문1>의 ‘오색이 찬란한 방식’에서 ‘찬란한’이라는 것은 표면적 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는 형상을 뜻한다. <예문2> ‘오색광명형’과 ‘오색원광형’ 또한 표면색이 아닌 광원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예문에서는 오색을 표현함에 있어 표면적 색이 아닌 광원의 색처럼 표기한 내용 또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 4.2. 왕권의 신성성(神聖性)과 오색

신라는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성립된 나라로 왕권의 성립 또한 불교적 교리를 중시하고 있다. <대산(臺山)의 오만진신(五萬眞身)>과 <명주 오대산보도태자전기(溟州 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는 신라 정신왕의 태자인 효명이 왕권을 계승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예문3> 淨神王之弟與王爭位, 國人廢之, 遣將軍四人到山迎之. 先到孝明庵前呼萬歲, 時有五色雲, 七日垂覆(일연, 민족문화문고간행회편, 1973).

정신왕(淨神王)의 아우가 왕으로 더불어 왕위를 다툰 제, 신라 사람들이 폐출하고 장군 네 사

람을 보내어 산에 이르러 맞이하되, 먼저 효명암(孝明庵) 앞에 이르러 만세(萬歲)를 불렀다. 이때 오색 구름이 이레 동안이나 덮였었다(이가원, 1991).

- 『삼국유사』 제 3권 『탑상(塔像)』 제4, <대산(臺山)의 오만진신(五萬眞身)> -

<예문4> 淨神太子弟副君, 在新羅爭位誅滅, 國人遣將軍四人到五臺山, 孝明太子前呼萬歲, 即是有五色雲, 自五臺至新羅, 七日七夜浮光(일연, 민족문화문고간행회편, 1973).

정신왕(淨神王)의 태자가 아우 부군(副君)과 신라에서 왕위를 다투다가, 주멸(誅滅) 되었을 제, 나라 사람들이 장군 네 사람을 보내어 오대산에 이르러 효명태자 앞에서 만세를 불렀더니, 홀연 오색 구름이 일어 오대산으로부터 신라에 이르기까지 7일 7야 동안 광채가 떠올랐다(이가원 1991).

- 『삼국유사』 제 3권 『탑상(塔像)』 제4, <명주 오대산보도태자전기(溟州 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

<예문3>과 <예문4>는 효명태자가 왕위에 오르자 이레 동안 ‘오색 구름’이 덮여 광채를 발하였다는 내용이다. ‘오색 구름’은 불교적 신성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왕권의 옹립과 당위성을 나타낸 초월적 색이다. 오색은 불교의 신성을 뜻하는 색이므로 왕권 옹립에 있어 종교적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한다.

#### 4.3. 벽사의 색과 오색

신라 제49대 헌강왕 때부터 내려온 처용설화에서는 처용의 형상을 문 위에 붙이면 사귀(邪鬼)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이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신라시대 벽사(辟邪)의 의미를 담은 형상이나 색들을 활용해 종교적 의식을 행해왔다. <밀본(密本)의 최사(摧邪)>에서는 밀본 법사가 ‘약사경’을 외워 사악한 병을 물리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밀본 법사가 ‘약사경’을 다 외우자 선덕왕 덕만의 병이 나았고, 그 후 밀본법사의 이마에 ‘오색 찬란한 빛’이 났다. 또 인혜사(因惠

師)에게 신통력을 행할 때 밀본 법사의 이마에 ‘오색 구름’이 돌리어졌다는 내용이다.

<예문5> 本在宸仗外, 讀藥師經, 卷軸纔周, 所持六環, 飛入寢內, 刺一老狐與法惕, 倒擲庭下, 王疾乃瘳. 時, 本頂上發五色神光, 觀者皆驚 (중략) 乃奉爐咒香, 俄頃五色雲施遶頂上, 天花散落(일연, 민족문화문고간행회편, 1973).

밀본이 신장(宸仗) 바깥에서 <약사경>을 외어 한권을 겨우 끝내자, 그가 지녔던 육환장(육환장)이 침실 안으로 날아 들어 한 늙은 여우와 범척을 찢러 뜯 아래로 거꾸로 던진 뒤 왕의 병이 곧 나았었다. 이때 밀본의 이마 위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나니, 보는 자들이 모두 놀랐었다. (중략) 곧 향로를 받들고 주문을 외우더니, 홀연 오색 구름이 이마 위에 돌리며 천화(天花)가 흩어져 내리는 것이었다(이가원 1991).

- 『삼국유사』 제 5권 『신주(神呪)』 제6, <밀본(密本)의 최사(摧邪)> -

<예문5>에서 밀본법사의 이마에 나는 ‘오색 찬란한 빛’과 ‘오색 구름’은 마치 부처의 형상에서 머리에 돌린 후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부처의 진신을 형상화 할 때도 오색의 신비한 빛과 광채의 표현이 차용됨을 <예문1>과 <예문2>를 통해 보았다. 이러한 신성한 오색의 빛은 밀본이 ‘약사경’을 외우고 벽사의 의식을 행함에 있어 종교적 상징의 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4.4. 오색을 통해 본 아키타입(Archetype)

아키타입(Archetype)은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에 의해 제기된 학설이며, 인류가 진화되기 시작한 과거와도 연결된 정신의 진화 과정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시적 이미지’를 말한다. 이는 조상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세계에 반응하도록 하는 소질 혹은 잠재적 가능성이다(이순희 2013).

아키타입에 대해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대표적으로 ‘뱀’ 혹은 ‘어두움’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직접 뱀에 물리는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 과거로부터 수많은 세대를 거쳐 이미 유전적으로 ‘뱀이 인간을 물 수 있는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이 집단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Hall and Nordby, 김형섭 역, 2004). 아키타입에는 ‘페르소나·아니마와 아니무스·그림자·자기·모성’ 등의 인간 정신의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삼국유사』에 표현된 오색(五色)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아키타입은 페르소나(Persona)의 아키타입과 긍정적 그림자의 아키타입이라 볼 수 있다. 페르소나란 일종의 가면(Mask) 의식으로 한 개인이 어떠한 집단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의미한다. 신부나 목사 스님과 같은 종교인은 종교인의 모습과 관행을 유지하며 종교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옛 관복제도에서 색을 활용해 신분을 구분하는 것 또한 페르소나의 아키타입으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오색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페르소나의 아키타입은 다음과 같다. <예문1>의 <사불산(四佛山)·굴불산(掘佛山)·만불산(萬佛山)>에서 표현된 ‘오색 찬란한 방식’과 <예문2>의 <대산(臺山)의 오만진신(五萬眞身)>에서 표현된 ‘오색광명형’과 ‘오색원광형’ 등 불교의 사상을 대변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예문3>의 <대산(臺山)의 오만진신(五萬眞身)>과 <예문4>의 <명주 오대산보도태자전기(溟州 五臺山寶陀徒太子傳記)>에서 ‘오색 구름’의 오색은 효명태자의 왕권 옹립을 위한 불교적 신성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적 신비성을 통해 ‘불국토’의 사상과 왕권의 신성성을 오색이라는 초월적 색으로 대변해 페르소나의 아키타입을 부각시킨 것이다.

긍정적 그림자의 아키타입은 인간의 내재된 본능적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확장된 자아, 즉 초능력적 인간이나 자아성철을 이룬 성인(聖人)인 예수나 부처와 같은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키타입이다.

<예문5> <밀본(密本)의 최사(摧邪)>에서는 밀본법사가 선덕왕 덕만의 병을 물리치거나 인혜사에게 신통력을 행할 때에 밀본법사의 이마에 ‘오색 찬란한 빛’과 ‘오색 구름’이라는 초월적 색을 통해 초능력의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 밀본법사는 사악한 병을 물리치는 벽사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며

벽사의 의식을 행하거나 신통력을 행할 때에 마치 부처의 모습처럼 오색 빛을 발하는 것이다. <예문 5> <밀본(密本)의 최사(摧邪)>의 초월적 오색은 긍정적 그림자의 아키타입을 내재하고 있다.

### 5. 결론 및 연구 활용 방안

『삼국유사』에 표현된 오색(五色)은 한국의 전통 색채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삼국시대의 정치와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차용된 색이다. 또한 오색은 페르소나와 긍정적 그림자의 아키타입이라는 무의식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색이 표현된 구절들은 각각의 의미와 상징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초월적 색채로서 표현되며 식물이나 동물이 아닌 무생물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오색은 당시 정치 이념인 불교사상을 대변한 것과 왕권 옹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불교적 신성성을 대변하는 것,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역할을 하는 것 등으로 차이점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에 대한 색채 아키타입은 <예문1>의 ‘오색이 찬란한 방식’과 <예문 2>의 ‘오색광명형, 오색원광형’은 불교적 신비성을 대변하는 페르소나의 아키타입을 내재하고 있다. 또 <예문3>의 ‘오색 구름’과 <예문4>의 ‘오색 구름’은 왕권 옹립의 신성성을 대변하는 페르소나의 아키타입을 내재한다. 그리고 <예문5>에서 밀본 법사의 이마에 ‘오색 찬란한 빛’과 ‘오색 구름’은 사악함을 물리치는 벽사의 능력을 가진 초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긍정적 그림자의 아키타입이 내재된 것으로 본다. 이를 간단히 도표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의 의미구분

예 문	의미구분	아키타입	공 통
<예문1>	불국토의 불교사상	불교적 페르소나	무생물 표현
<예문2>	불국토의 불교사상		
<예문3>	왕권의 신성성	왕권의 페르소나	
<예문4>	왕권의 신성성		
<예문5>	벽사의 색	긍정적 그림자	

『삼국유사』의 오색은 한국의 전통 색채의식을 연구함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 색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의 의의는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또한 연구 활용에 있어 오색의 의미와 상징성을 제시하여 고대 문화와 관련된 색채 재현과 배색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아키타입의 분석 방법은 최근 새롭게 시도된 분석 방법으로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의 아키타입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채의식 연구에 있어 접목해 볼 수 있는 심층적 색채 분석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키타입의 분석은 고대의 색채의식과 현대의 색채의식을 분석하고 비교해 볼 수 있으며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심층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색채의식에 대한 연구는 『삼국유사』에 표기된 오색에 대한 연구와 같이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고문헌들을 포함해 다양한 전통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색채 표현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국 전통 색채의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문은배 (2012). 한국의 전통색. 파주: (주)안그라픽스.
- 이순희 (2009).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인의 색채 의식과 색채 상징성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3(1), 157-172.
- 이순희 (2013). 한국 시각 디자인의 조형적·색채적 아키타입에 대한 연구: 한국 선사 암각화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대구.
- 일연 (2009). 삼국유사 (노중국 역).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일연 (1973). 삼국유사: 한국고전총서 1 (민족문화문고간행회 편).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일연 (1991). 삼국유사신역(이가원 역). 서울: 태학사.
- Hall, C. S. and Nordby, V. J. (2004). 융 심리

학 입문 (김형섭 역). 서울: (주)문예출판사.

- <http://www.jikji.org>

[논문접수: 2014.01.30.]

[1차 심사: 2014.02.03.]

[2차 심사: 2014.04.24.]

[게재확정: 2014.05.09.]